



● 2026 교원학습공동체 결과 공유



학급긍정훈육으로 펼쳐낸 사회정서교육



다시, 봄



학급긍정훈육으로 함께 읽고
다시 해 본 유아 사회정서교육



“다시, 봄”에 담은 세 가지 마음

다시 바라봄

아이의 행동 뒤에 있는 마음과 필요를 봅니다.

다시 해 봄

실수한 교사도, 아이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자라는 봄

소속감과 기여를 배우는 교실을 지향합니다.

배우고 · 시도하고 · 다시 나눴습니다

2026. 6.-9.

공동체 활동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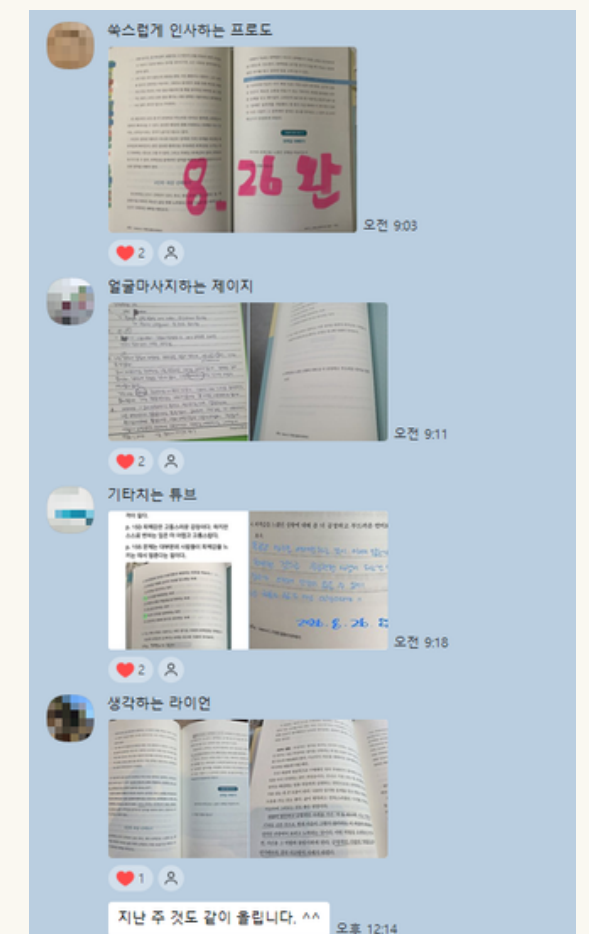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태를 바꾸어 가며 지속적으로 만남

읽기와 강의 수강

활동 자료 구성과 나눔

일반교육·특수교육의 시선을 함께 놓고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교정 전에 연결”이라는 기준을 만났습니다

전문가 멘토링(2회)

온라인 강의(육아정책연구소 지원)를 듣고 함께 나눔
대면 멘토링(자체 진행)을 통한 나눔

대면 워크숍 참여

9.19.-20. 대면 워크숍 참여





행동은 ‘문제’이기 전에 메시지입니다

소리 지름 · 거부 · 밀기

왜 그랬을까?

관심이 필요한가, 피곤한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가?

행동 아래의 맥락을 함께 찾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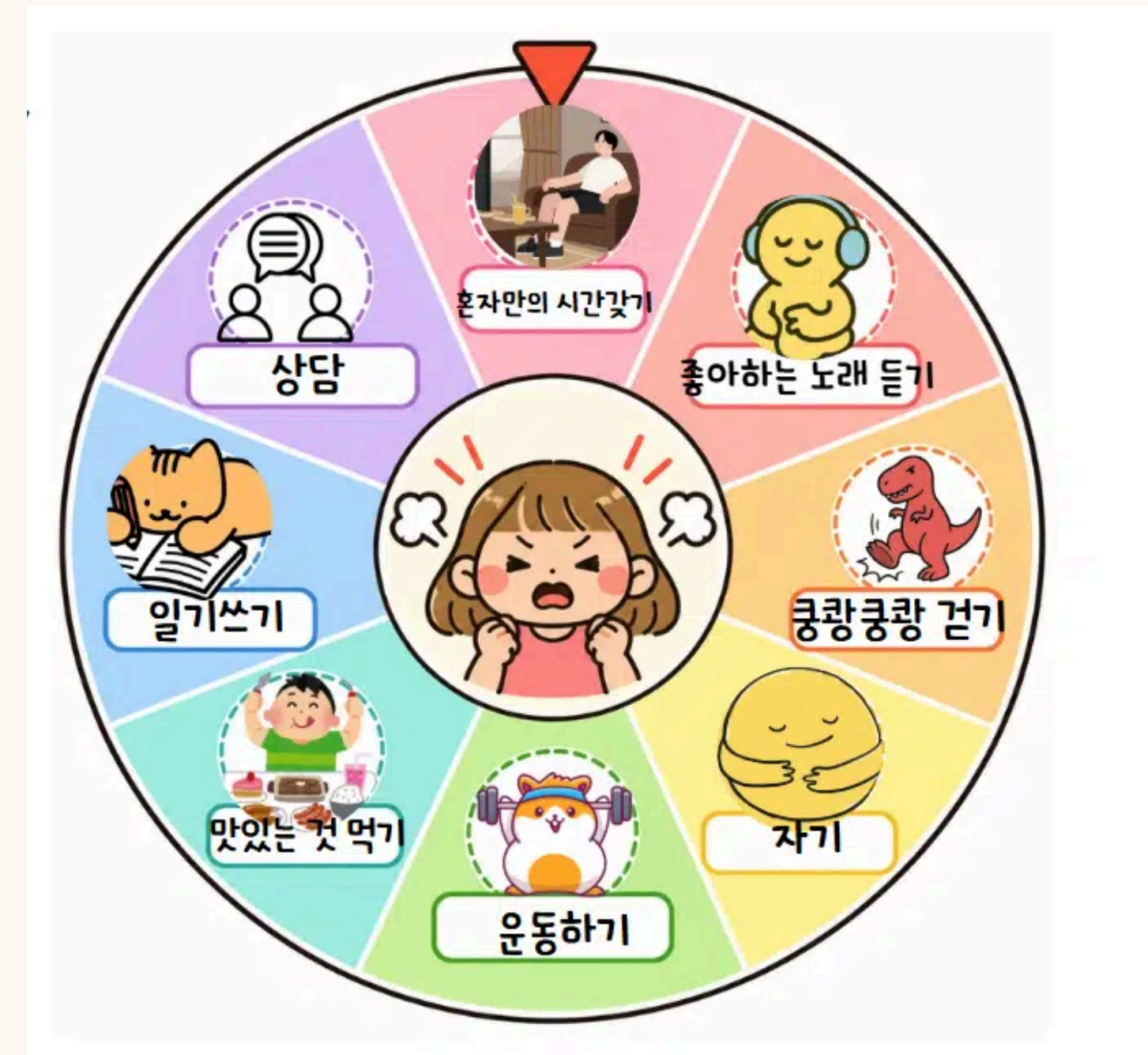
감정은 받아들이고, 행동은 가르칩니다

① 몸의 신호 알아차리기

② 감정에 이름 붙이기

③ 진정할 방법을 선택하기

“화났구나. 그래도 친구를 밀 수는 없어.”



감정돌림판 만들기 예시

결과의 칭찬에서 과정의 격려로

“잘했어!”

→ “끝까지 다시 해 보았구나.”

구체적으로 보고 · 고마움을 전하고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 줍니다.

2. 격려사워

진행 순서

1. 오늘의 주인공 친구가 가운데 자리에 앉기
2. 친구들이 돌아가며
"○○아, 네가 웃으며 인사해 줄 때 힘이나"
"블록 쌓을 때 도와줘서 고마웠어"
라는 구체적 격려의 말 전하기
3. 우리반 모두가 격려의 말 해주고 마무리하기

넌 정말
잘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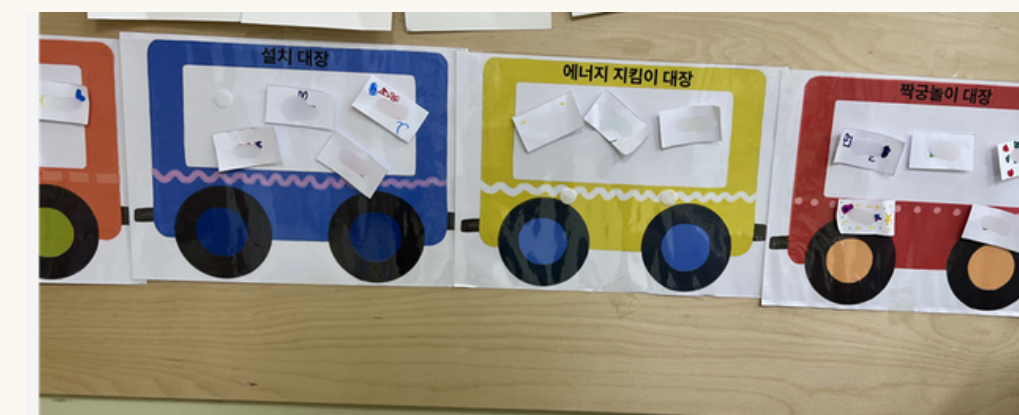
힘내

작은 역할이 “나는 우리 반에 필요해”가 됩니다

기차대장 · 인사대장

달력대장 · 도우미대장

역할을 나누고, 방법을 보여주고,
실제로 기여할 기회를 줍니다.



실수는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

교사도 먼저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반 나무’에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을 모읍니다.



지시를 줄이고, 함께 풀어 갈 자리를 만듭니다



상처받은 영대

친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원으로 앉기 → 말 듣기 → 생각 모으기 → 함께 결정

STEP 3 학급회의



- 서로의 생각 모으기(브레인스토밍)
- 토크 스틱을 지닌 유아의 말을 **경청**
- 서로의 생각을 **존중**
- 교실 공동체에서의 **소속감**
- **기여**할 방법 찾기



함께 결정

확인한 성과는 교사의 시선과 실천 언어입니다

함께 만든 8개 활동 자료 묶음

행동을 해석하고, 감정에 공감하고, 격려하며,
역할과 학급회의로 연결하는 도구를 나눴습니다.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만남

사례를 함께 읽을 동료와 다시 해 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유아 변화의 장기·정량적 효과는 이번 자료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보고, 다시 해 보고, 함께 자라겠습니다

작은 실천을 기록하고

아이의 나이와 필요에 맞게 바꾸고

동료 · 가정과 다시 나누겠습니다.

“위로받고 다시 최선을 다해 볼 용기”

